15. 사람됨의 철학

論語

공자는 인(仁)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인간관계의 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예(禮)를 강조하고, 위정자에게 덕(德)으로 백성을 교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의 철학이 담긴 논어를 통해 사람됨의 자세와 조화로운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



子曰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有朋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아?" '학이(學而)'

자공이 "한마디 말로 죽을 때까지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니,

子曰 "其恕乎인저.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라."

'위령공(衛靈公)'

새로 배울 한자

*慍 **온** 성내다　　恕 **서** 용서하다, 어질다　　帥 **수** 장수, **솔** 거느리다　　孰 **숙** 누구

- 한자의 여러 가지 쓰임을 알 수 있다.
- 공자의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으니, 공자가 대답하여 말했다.

"政者는 正也니 子帥以正이면 孰敢不正이리오?"

'안연(顔淵)'



공자(孔子) 공구(孔丘)(B.C. 551~ B.C. 479).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

읽고 풀이하기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스승(여기서는 공자를 뜻함) 기쁘다=悅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부터 먼 곳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남 성내다(서운해 하다) 군자(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을 갖춘 사람)

子曰: "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하지 말라 ~에게

政者, 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
것 그대 거느리다 누가

*不亦~乎: 또한 ~하지 아니한가?

*說: ① **설** 말씀 說明(설명)
② **세** 달래다 遊說(유세)
③ **열** **기쁘다**

*自: ① 자기 自我(자아)
② 스스로 自動(자동)
③ **~부터** 自古(자고)

*樂: ① **락** **즐겁다** 樂園(낙원)
② **요** 좋아하다 樂山樂水 (요산요수)
③ **악** 음악 雅樂(아악)

*人: ① 사람
② **남**

*恕 : '남의 잘못을 용서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려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즉 타인에게 '공감하고 배려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함.

*其~乎: 아마도 ~일 것이다.

*子: ① 자식
② 스승
③ **당신, 그대**

*帥: ① **수** 장수
② **솔** **거느리다**

생각 넓히기

다음 중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을 골라 풀이하고,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 보자.

◎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 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 政者, 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

① 문장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시오.

② 인상 깊었던 이유를 나의 경험이나 상황과 연관 지어 서술하시오.

인문학 더하기

공자,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말하다

공자는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 가난하고 천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며,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 부유하고 귀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하여, 사회 지도 계층에게 사리사욕을 경계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통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말한다. 이 말은 고대 로마 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사회 고위층의 공공 봉사와 기부·헌납 등의 전통이 강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는 유럽의 교양 있는 상류층의 기본 정신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스웨덴의 금융·항공·통신·가전 등의 14개 대기업군을 거느리며 스웨덴 주가 총액 40%를 장악하고 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가 집안이지만 경영권을 계승하는 후계자는 자질과 철저한 도덕적 검증을 거친 후 반드시 2명으로 선정된다. 후계자가 2명인 이유는 균형과 견제를 통해 전횡을 막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이 가문 사람들의 어느 누구도 세계 1,000대 부자 안에는 들어간 적이 없었다. 기업의 파트너로서 노조의 대표를 반드시 경영진에 포함하고, 수익의 85%를 법인세로 국가에 환원한다. "존재하되,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발렌베리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150년간의 전통으로 지속되고 있다.

※참조: "EBS 지식채널ⓔ" '후계자들'(2014년 1월 7일 방송)

어휘력 키우기



① '言'이 들어간 한자

謙 겸 겸손하다 _ 謙虛 겸허
謠 요 노래 _ 歌謠 가요
誘 유 꾀다 _ 誘發 유발
該 해 갖추다 _ 該博 해박
謁 알 뵙다 _ 謁見 알현
謹 근 삼가다 _ 謹弔 근조
誓 서 맹세하다 _ 誓約 서약
訂 정 바로잡다 _ 校訂 교정
誌 지 기록하다 _ 雜誌 잡지

② '糸'가 들어간 한자

綱 강 벼리 _ 紀綱 기강
糾 규 얽히다 _ 糾明 규명
級 급 등급 _ 昇級 승급
綿 면 솜 _ 綿密 면밀
緩 완 느리다 _ 緩慢 완만
緯 위 씨줄 _ 經緯 경위

③ 不의 활용 _ 不은 뒤에 ㄷ 또는 ㅈ이 오면 '부'로 읽음.

부

不渡 부도
不斷 부단
不凍港 부동항
不導體 부도체
不整脈 부정맥

불

不安 불안
不毛地 불모지
不名譽 불명예
不履行 불이행
不確實 불확실

새로 배울 한자

謙 **겸** 겸손하다
謹 **근** 삼가다
糾 **규** 얽히다
謠 **요** 노래
訂 **정** 바로잡다
級 **급** 등급
該 **해** 갖추다
誌 **지** 기록하다
昇 **승** 오르다
博 **박** 넓다
綱 **강** 벼리
綿 **면** 솜
謁 **알** 뵙다
紀 **기** 벼리
緩 **완** 느리다

확인하기



1. ㉠~㉤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 子曰 :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① ㉠: 그것 ② ㉡: 기쁘다 ③ ㉢: 스스로
④ ㉣: 남 ⑤ ㉤: 성내다

2. 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 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①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②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
③ 매사에 서두르다가 실수가 잦은 사람 ④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
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

3. ㉠의 풀이로 옳은 것은?

> 政者, 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

① 스승 ② 제자 ③ 남자
④ 자식 ⑤ 당신

緯 **위** 씨줄 渡 **도** 건너다 凍 **동** 얼다 港 **항** 항구 導 **도** 이끌다
整 **정** 가지런하다 譽 **예** 기리다 履 **리** 신발, 밟다 確 **확** 굳다